

〈일반논문〉

원 간섭기 탐라 귀속 문제와 '제주 방물' 진헌

박 정 환 *

〈목차〉

- I. 머리말
- II. 고려-원 간 탐라 귀속 문제
- III. 대원(對元) 제주 방물 및 탐라마 진헌
- IV. 제주 방물 진헌의 정치·외교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를 통해 원 간섭기에 일어난 고려와 원나라 간의 탐라 귀속 문제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고려의 대원 '제주 방물' 및 탐라마 진헌을 고찰하면서 이 시기 제주 지역을 둘러싼 여-원 양국의 이해관계와 제주의 지역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로는 고려의 탐라 통치와 원의 지배, 탐라를 회복하려는 고려의 노력을 살펴보면서 여-원이 인식한 탐라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형식적으로나마 탐라를 반환받은 고려 조정이 원에 보내기 시작한 탐라마를 비롯한 제주 물산을 분석하면서 제주 방물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로는 제주 지역이 고려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고려의 제주 방물 진헌에 대한 정치·외교적 의미

*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를 확인하였다.

제주 방물 진헌을 통해 다음과 같이 원 간섭기 제주 지역의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고려는 13세기 중후반 충렬왕 연간에 원과의 갈등과 교섭 속에서 제주 지역을 환속 받았다. 그리고 고려는 제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 방물'을 이용하였다. 다만 제주 방물(부세)이라는 납세의 의무 하나만으로 오랜 기간 탐라인으로 살았던 제주민을 고려인의 정체성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제주의 토호인 성주의 자치권은 고려 말까지 유효할 수 있었다. 즉, 원 간섭기에 제주는 고려령이면서 이국(異國)인 지역, 목장을 관리한 몽골인 목호(하치)들로 인해 원의 영향력이 상존한 다중적 성격의 지역으로 존재하였다.

□ 주제어

충렬왕, 탐라 귀속, 제주 방물, 탐라마, 목호(하치)

I. 머리말

탐라의 삼별초 잔여 세력이 고려 조정과 원에 의해 토벌되었다. 고려 조정은 삼별초 잔여 세력으로부터 수복한 탐라의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원에서 탐라 정벌을 계기로 탐라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나라는 고려 본토와 근접한 탐라를 주목하여 일본 정벌을 위한 요충지로 활용하고, 목축이 가능한 환경을 주목하였다. 또한 비교적 큰 섬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점도 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나라는 고려의 의사와 관계없이 탐라에 총관부를 설치하여 직할령으로 삼았다.

본래 탐라는 10~12세기까지만 해도 고려에 공물을 바친 국가였지만, 숙종(肅宗) 연간(1095~1105)에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고려가 원을 상국으로 섬긴 것과 별개로 영토 탈취는 다분히 양국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었다. 탐라는 고려전기에 안무사(安撫使)가 파견될 정도로 행정상 위격이 높은 지역이었고 굴, 약재, 말을 비롯한 축산물, 해산물 등이 생산되었던 지역이었기에 고려로서는 탐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

탐라에 대한 연구는 고려전기와 원 간섭기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고려전기 탐라 연구에서는 고려-탐라의 신속(臣屬) 관계, 고려의 탐라 지배 형태 및 성격, 탐라의 고려 편입과 군현제 편제 시기 규명, 고려의 탐라 인식 변화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¹⁾ 원 간섭기 탐라 연구에서는 삼별초 항쟁 중 탐라가 마지막 거점으로 기능한 의미를 살펴보거나,²⁾ 고려-원 관계 속 탐라의 변화상을 확인하면서 목호(牧胡)와 죄수 등 몽골인들이 탐라에 들어간 배경과 목적을 고찰하였다.³⁾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에서는 고려와 원의 잦은 지배 구조 변동에 따른 탐라마(耽羅馬) 경영의 변천을

-
- 1) 고창석,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高麗前期를 중심으로-」, 『濟州大 論文集』 14, 제주대학교, 1982; 진영일,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耽羅文化』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김일우,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김일우, 「高麗와 耽羅의 관계 형성과 그 형태」, 『한국학보』 30-2, 일지사(한국학보), 2004;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제주학회, 2005; 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호서사학회, 2018; 전영준, 「10~12세기 고려의 渤海難民 수용과 주변국 同化政策」, 『濟州島研究』 55, 제주학회, 2021.
- 2) 윤용혁, 「제주 삼별초와 몽골·동아시아 세계」,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오기승, 「13세기 여몽 경제지대에서의 삼별초 세력에 대한 고찰」,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 3) 고창석, 「麗·元和 耽羅와의 關係」,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1984; 김일우, 「고려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배숙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중국사학회, 2012.

살펴보기도 하였다.⁴⁾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말’이라는 소재에 주목하여 원 간섭기 제주 지역의 말 사육과 목장 운영에 대해 고찰하였다.⁵⁾ 그 외에 탐라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는데, 13~14세기 원의 탐라 정책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려 조정의 탐라 정책이 어떠한지 검토하였다.⁶⁾ 이와 함께 전자와 마찬가지로 동 시기를 다루면서 원이 탐라를 점령하고 이를 지배하기 위해 관할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고찰한 연구도 있다.⁷⁾ 한편 원의 지배를 받은 탐라에 몽골의 음식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을 주목하여 그것의 변동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⁸⁾

이처럼 탐라에 관한 연구는 고려의 탐라 지배 과정, 삼별초의 항쟁과 탐라 입도, 원의 통치 방식, 몽골 이주민 유입, 몽골산 탐라마 사육과 목장 운영 등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탐라를 지배한 외부 세력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한 여러 요소들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고려의 군현인 동시에 토착 지배자가 존재한 지역, 원의 다루가치가 파견된 탐라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여-원 관계에서 탐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원 간섭기 고려에 귀

4) 이바른, 「고려 후기 목호(牧胡)의 제주 이주와 마정(馬政)」, 『한국중세사연구』 73, 한국중세사학회, 2023.

5) 진축삼, 「蒙元과 濟州馬」, 『耽羅文化』 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김일우, 「고려시대 耽羅 지역의 牛馬飼育」, 『史學研究』 78, 한국사학회, 2005;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6)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7) 최윤정, 「몽골의 탐라에서 고려의 제주로 - 13~14세기 탐라 관할권의 변화와 그 원인 -」, 『대구사학』 154, 대구사학회, 2024.

8) 이종수, 「13세기 고려의 탕(湯) 음식문화 변동 분석 : 개성, 안동, 탐라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15; 「13세기 탐라와 원제국의 음식문화 변동 분석」, 『아세아연구』 16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속된 탐라가 어떠한 성격의 지역인지 논의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충렬왕 연간에 발생한 탐라 귀속 문제와 대원 제주 방물 진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탐라의 연원과 원의 지배, 탐라를 회복하려는 고려의 노력을 살펴보면서 여-원이 인식한 탐라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탐라를 반환받은 고려 조정이 원에 보내기 시작한 탐라마를 비롯한 제주 지역 물산을 분석하면서 제주 방물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을 기반으로 하여 고려의 대원 제주 방물 진헌에 대한 정치·외교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고려의 군현 체제에 속하면서 고려와 원에 방물을 납부할 수밖에 없던 제주 지역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원 간섭기 탐라의 다중적 지위 형성을 비롯하여 고려에 있어 탐라가 지니는 의미, 고려 조정이 원나라에 제주 방물을 진헌함으로써 얻고자한 실리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II. 고려-원 간 탐라 귀속 문제

제주도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주호국(州胡國)' 혹은 '탐라국(耽羅國)'이라는 독립국이었다.⁹⁾ 탐라는 5세기 무렵 백제의 지배를 시작으로,¹⁰⁾ 679년에 나·당 전쟁(670~676)에서 승리하여 삼국 통일을 마무리한 신라

9) 『後漢書』 권85, 東夷列傳75, 三韓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清末 지리학자 丁謙(1843~1919)은 州胡를 지금의 濟州로 보았다.

10)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20年 8月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의 속국이 되었다.¹¹⁾ 백제와 통일신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탐라는 한반도 왕조의 세력권에 포함되었고 그 정치적 변동을 함께하였다.

표면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던 탐라가 공식적으로 한반도 왕조의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것은 고려전기의 사실이다. 군현제 편입 전 탐라는 고려에 자주 내조하며 방물(方物, 토산물)을 바쳤다. 탐라는 938년에 태자 말로(末老)를 고려 조정에 입조시켜 성주(星主)·왕자(王子)의 작위를 받았다. 탐라의 군주인 국주(國主)¹²⁾와 태자(太子)가 고려 제왕이 책봉하는 성주와 왕자가 된 것이다.¹³⁾ 12세기 초 숙종 연간인 1104년까지 속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탐라는 고려의 영토에 편입되어 탐라군(耽羅郡)이 되었다. 다만 탐라에는 성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에 고려 조정은 외관을 바로 파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는 탐라에 대한 군현 통치를 체계화하기 위해 1153년 탐라군을 현(縣)으로 개편하고 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여기에 고려 조정은 탐라의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본토의 여러 도(道)에서 민심 안정과 수령의 학정을 관리하던 안무사를 파견하였다.¹⁴⁾ 그럼에도 탐라가 이전에 고려를 ‘상국’으로 모신 것과 달리 ‘외

11)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2年 2月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 一作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의 기록에 의하면 탐라는 662년에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 그러나 『舊唐書』 권84 劉仁軌傳에는 “거짓 왕자 부여충승·충지 등이 사족과 여인들 및 왜의 무리, 그리고 탐라국 사신을 이끌고 한꺼번에 항복하였다”라고 하여 탐라국이 백제부흥운동에 편승하여 신라를 적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신라는 나·당 전쟁이 끝나자 679년 관리를 보내 탐라를 둘러보게 하여 탐라의 지배권을 세우게 된다.

12) 고려 이전에 탐라국의 수장은 탐라국주로 불렸으나 탐라국왕이라는 명칭도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唐代의 자료를 정리한 『冊府元龜』 권970, 外臣部 朝貢條에 의하면 ‘耽羅國王’이라 기재하고 있다.

13)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全羅道 耽羅縣 “太祖二十一年,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14)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2年 2月 丙戌 “丙戌 分遣諸道安撫使, 起居郎李汝

국'인 고려가 탐라의 통치자로 나서면서 탐라인들의 반발이 생기기도 하였다.¹⁵⁾

13세기 중반에는 몽골에서 일본 원정을 계기로 탐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몽골의 쿠빌라이는 남송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송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해 그 주변국을 정벌하였다. 따라서 해로로 남송과 연결된 일본의 존재는 몽골에 우려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몽골은 1274년 1차 원정 이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다. 결국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고려와 일본, 남송 사이 해상에 위치한 탐라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¹⁶⁾

1267년 1월 탐라의 성주 양호(梁浩)가 몽골에 입조하여 쿠빌라이를 알현하였다.¹⁷⁾ 탐라와 몽골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건이었다.¹⁸⁾ 다만, 양호는 탐라에서 곧바로 몽골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탐라는

霖于楊廣·忠淸州道，大府少卿崔渭于全羅州道，侍御史智祿延于慶尙·晉州道，問民疾苦，察守令殿最，以聞。『高麗史』 권18, 世家18, 毅宗 22年 11月 丁丑 “丁丑 耽羅安撫使趙冬曦，入覲。… 賊等自降。斬良守等二人及其黨五人，餘皆賜穀帛，以撫之。”

15) 『高麗史』 권18, 世家18, 毅宗 22年 11月 丁丑 “先是，貢賦不煩，民樂其業，近者，官吏不法，賊首良守等，謀叛，逐守宰。… 賊等自降。斬良守等二人及其黨五人，餘皆賜穀帛，以撫之。”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6年 7月 甲申 “秋七月 甲申 有人告耽羅叛。”

16) 『元史』 권208, 列傳95, 外夷1, 耽羅 “耽羅，高麗與國也。世祖既臣服高麗，以耽羅爲南宋·日本衝要，亦注意焉。”

17) 양호와 관련해서는 탐라 성주가 아닌 왕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창석, 『麗·元和 耽羅와의 關係』,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1984). 이는 『耽羅志』 古蹟條의 ‘왕자’ 기록이 근거이다. 그러나 쿠빌라이를 알현한 현석이 탐라를 대표한 ‘성주’의 직함을 공식적으로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元史』의 기록을 오기라 단정 짓기 어렵다.

18) 『元史』 권6, 本紀6, 世祖 忽必烈 至元 4年 春正月 乙巳 “百濟遣其臣梁浩來朝，賜以錦繡有差。” 해당 사료에서 나온 ‘백제’는 ‘탐라’의 오기이다. 당시 몽골(원)에서는 탐라가 고려에 부속된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려의 군현인 동시에 성주가 존재한 탐라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통제를 받는 지역이었기에 고려 조정에 들어가 원종의 허락을 받고¹⁹⁾ 1266년 12월에 정언(正言) 현석(玄錫)의 인도를 받아 몽골에 입조하였다.²⁰⁾ 그런데 이 사실은 단순히 탐라가 몽골에 입조하여 황제를 알현한 사건이 아니었다. 고려의 군현에 편입된 지 150여년이 된 탐라가 국가적 단위의 외교 활동을 벌인 것이며, 지배국인 고려가 몽골과의 접촉을 주선한 것이다. 고려가 군현인 탐라를 온전한 형태의 영토로 의식하고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려가 몽골 조정 내에서 탐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에, 고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탐라의 성주를 인솔하여 황제를 알현하게 함으로써 탐라의 지배권이 고려에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그럼에도 탐라가 몽골에 입조한 것을 계기로 몽골 황제는 탐라 성주-고려 국왕 관계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몽골은 탐라를 점차 고려와 분리된 별개의 지역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려국왕 왕식(원종)이 그 신하 최동수(崔東秀)를 보내어 와서 군사 10,000명을 준비하고 배 1,000척을 만든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서 도통령 탈타아(脫朶兒, 툽토르)로 하여금 가서 검열하게 하고, 나아가서 흑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보게 하고, 이어서 탐라에 명령하여 별도로 배 100척을 만들어 쓰임에 대비하게 하였다.”²²⁾

19)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7年 11月 丙辰 “濟州星主來見.”

20)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7年 12月 甲子 “遣正言玄錫, 以星主如蒙古.”

21) 고려는 전기에 遼(契丹)의 榷場 설치 문제와 원 간섭기에 쿠빌라이의 아릭부케 격파 소식을 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 따라서 원의 일본 원정 계획 중 나오는 탐라에 관한 소식을 고려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22) 『元史』 권6, 本紀6, 世祖 忽必烈 至元 5年 7月 丙子 “高麗國王王禎遣其臣崔東秀來言備兵一萬. 造船千隻. 詔遣都統領脫朶兒往閱之, 就相視黑山日本道路, 仍命耽羅別造船百艘以伺調用.”

1268년 쿠빌라이는 도통령 툽토르(脫朶兒)를 고려에 파견하여 고려 조정의 일본 정벌 준비를 점검하게 하면서 일본으로 가는 해로를 살피게 하였다. 더불어 탐라에 명하여 고려와 마찬가지로 배 100척을 건조하게 하여 원정에 대비하게 하였다. 고려를 경유하여 탐라에 명령을 하달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전한 것이다. 이어 이듬해인 1269년에 쿠빌라이는 재차 툽토르와 왕국창(王國昌) 등을 고려에 보내어 준비된 병선을 점검하는 한편 탐라에 들어가 도로를 살피게 하였다.²³⁾ 탐라가 일본 원정을 계기로 점차 고려의 지배력이 배제되고 몽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71년 몽골이 국호를 '원(元)'으로 고칠 무렵, 고려 조정의 개경 환도에 반대하던 삼별초가 고려 관군과 몽골군에 의해 진도에서 패하고 잔여 세력이 탐라로 건너갔다. 일본 원정의 요충지로 여긴 탐라가 삼별초의 거점이 되자 원에서는 삼별초에 대한 토벌을 고려하였다.²⁴⁾ 여기에 고려 조정에서도 삼별초를 진압하지 못하면서 원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탐라 성주마저 입조하여 토벌을 요청하자 1272년 12월 원나라는 탐라의 삼별초 세력에 대한 토벌을 결정하였다.²⁵⁾ 1273년 마침내 여-원 연합군은 삼별초를 정벌하고 탐라를 점령하였다. 삼별초가 패망하자 고려 조정은 반란

23) 『元史』 권6, 本紀6, 世祖 忽必烈 至元 6年 7月 癸酉 “復遣都統領脫朶兒·統領王國昌等往高麗點閱所備兵船, 及相視耽羅等處道路.”

24) 『元史』 권208, 列傳95, 外夷1, 耽羅 “(至元) 九年三月, 鐵匠高樓等上黑山·耽羅等海道圖本, 就中書省圖看過議定. 省·院·臺等同奏, “黑山·耽羅公事, 臣等議得, 宜先取耽羅.” 『元史』에 의하면 이 무렵 탐라국왕(성주)이 원에 입조하여 ‘지금 도적들이 그 주인을 몰아내고 성곽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의리상 마땅히 먼저 평정해야 합니다(耽羅國王曾來朝, 見今叛賊逐其主, 占據城郭, 義當先平).’라고 했다고 한다. 탐라가 고려를 거치지 않고 원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로 보이는데, 당시 탐라에서도 고려 조정이 약화된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5)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3年 12月 乙未 “元以攻討濟州, 詔王, ‘簽軍六千, 水手三千.’”

의 주모자만 처형하고 나머지 탐라 백성들에 대한 위무를 진행하였다. 먼저 고려 조정은 원나라군이 제멋대로 탐라 양가(良家)의 여자들을 빼앗아 노비로 삼는 것을 금하게 해달라고 원에 요청하였고,²⁶⁾ 또한 전란으로 인해 탐라의 백성들이 육지에 나올 것을 우려하여 예전처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²⁷⁾ 이어 고려 조정은 항복한 1,300여 인을 여러 배에 나누어 태우고, 원래부터 탐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전처럼 안주하게 하였다.²⁸⁾

원나라는 탐라 점령 이전부터 이미 탐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날 의사가 없었다. 원 조정은 탐라 정벌 이전에 원종이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지원군을 빌리고자 올렸던 표문의 “바라건대 상사(上司)에서 힘을 합쳐 탐라를 병탄하십시오.”²⁹⁾ 라는 문구를 명분으로 삼아 탐라 지배를 공식화하였다. 원에서 다루가치, 이른바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使)라는 관리를 파견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다.³⁰⁾ 아울러 원나라는 탐라 통치의 안정을 위해 삼별초 진압 시 육지로 도망한 탐라인들을 찾아내 본향으로 추쇄하게 하였다.³¹⁾

1273년에 설치된 탐라국초토사의 주요 임무는 공부(貢賦)로 해마다

26) 『高麗史節要』 권19, 元宗順孝大王 元宗 14年 2月 “元命忻都茶丘等討耽羅. 又禁官軍擅奪良家女爲婢, 又聽自制兵仗, 從王請也.”

27) 『高麗史節要』 권19, 元宗順孝大王 元宗 14年 2月 “平賊後耽羅人民勿令出陸依舊安業. 帝皆從之.”

28) 『高麗史節要』 권19, 元宗順孝大王 元宗 14年 4月 “方慶曰, ‘殲厥巨魁, 脅從罔治, 汝勿懼.’ 只斬金元允等六人, 分處降者一千三百餘人于諸船.”

29) 『元史』 권208, 列傳95, 外夷1, 耽羅 “高麗王亦稱, ‘乞上司添力, 併除耽羅.’”

30)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4年 閏6月 丙辰 “耽羅留鎮將軍宋甫演, 得賊魁金通精屍, 以聞. 又搜捕賊將金革正·李奇等七十餘人, 送于茶丘, 皆殺之. 元置達魯花赤于耽羅.” 『元史』 권133, 列傳20, 失里伯 “失里伯, 蒙古人. …〈至元〉十年, 遷昭勇大將軍, 爲耽羅國招討使.”

31)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7月 丁酉 “元遣王延生, 推刷耽羅人物, 延生司徒禎庶子也, 珍島之敗, 沒入元.”

모시포 100필을 진상하는 것이었다. 이어 원나라는 1275년에 탐라국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탐라총관부)를 두어 통치하였는데, 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는 현지의 관원보다 지위가 높았고 원 황제의 통치를 보장하였다. 또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원수부, 만호부, 천호부에 다루가치를 두어 군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에 이어 탐라에 설치된 관부는 탐라국군민안撫司(耽羅國軍民安撫司)이다. 원나라는 행정(行省) 아래에 선위사(宣慰司)를 설치하여 행정과 군현의 소통을 책임지게 하였는데, 진수(鎭守)와 정토(征討)를 증시했으므로 군사 기구에 가까웠다. 선위사 아래에는 초토, 안무, 선무 등의 사(使)가 있었다. 이렇듯 관부가 체계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원의 탐라 통치는 심화되어 갔다.³²⁾

원나라는 본국과 멀리 떨어진 탐라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간접 지배 중인 고려 본토와의 교통로 구축을 꾀하였다. 1270년대 후반 다루가치가 탐라와 고려 남부를 연결시키는 작업에 나섰는데, 탐라의 다루가치가 나주와 해남 등 전라도 지역에 역전(驛傳)을 설치한 것이다.³³⁾ 나아가 원나라는 탐라를 1293년에 설치한 '수역(水驛)' 노선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³⁴⁾

이어 원나라는 1276년 타라치를 탐라의 다루가치로 파견하면서 몽골 종마 160필을 보내 기르도록 하였다.³⁵⁾ 또한 원에서 말이 들어오자 이를

32) 배숙희, 「원나라의 탐라(耽羅) 통치와 이주(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研究』 76, 중국사학회, 2012, 97~105쪽.

33)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4年 7月 壬辰 “王上書中書省曰 ‘… 又有耽羅達魯花赤於羅州海南地面擅置站赤是何体例? …’”

34)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90쪽.

35)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8月 丁亥 “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匹來牧.”

관리하는 목장이 생겨났고, 목축에 종사하는 몽골인 목호들도 탐라에 입도하였다.³⁶⁾ 원이 탐라에 목장을 설치한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 원정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환경적인 배경도 있었다. 첫째, 탐라에서는 말을 나타내는 별자리인 방성(房星)을 볼 수 있어 말 생산에 유리하다고 믿었고 둘째, 방목시킨 말들을 위협하는 늑대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없었으며 셋째, 풍족한 초지와 온대 기후로 말을 방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는 탐라에 목장을 조성하였다.³⁷⁾

1270년대 원나라는 탐라에서 고려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통치를 이어갔다. 그런데 1280년대에 들면서 탐라-원의 관계가 탐라-고려-원의 구도로 환원되어갔다. 그것은 원의 부마였던 충렬왕이 1281년 ‘부마국왕 선명(駙馬國王宣命)’과 ‘정동행중서성인(征東行中書省印)’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³⁸⁾ 그러면서 원은 탐라에 관한 사안을 정동행성의 승상이 기도한 충렬왕에게 위임하였다.³⁹⁾ 1294년 쿠빌라이의 사망으로 원의 대

36) 이바른, 「고려 후기 목호(牧胡)의 제주 이주와 마정(馬政)」, 『한국중세사연구』 73, 한국중세사학회, 2023, 129쪽.

37) 앞의 논문, 125쪽; 목초지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 연구(김일우, 「고려시대 耽羅 주민들의 생업활동과 그 유형」, 『국사관논총』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고려전기부터 탐라를 포함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말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탐라인의 색다른 농작법을 언급하며 갈아먹는 땅에는 반드시 소와 말을 풀어놓아 밟게 했다고 한다. 이는 제주 지역의 토양이 한반도의 토양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벼운 현무암질의 화산토로써 해양풍에 의해 종자가 유실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즉, 탐라인들에게 목초지는 소와 말 사육 그 자체의 목적 이라기 보단 농사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38) 『高麗史』 권72, 志26, 輿服 王印章 “忠烈王七年三月 元賜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印, 先是, 王奏曰, ‘臣既尙公主, 乞改宣命, 益駙馬二字.’ 許之.”

39) 1282년 탐라에 주둔한 몽골 및 한인 군대 1,400명의 진수군 관리를 고려 조정에 맡겼고, 1287년 나얀의 난 진압 이후 원 조정은 충렬왕에게 만호 등 군관에 대한 임명 및 교체 권한을 부여하였다(최윤정, 「몽골의 탐라에서 고려의 제주로 - 13~14세기 탐라 관할권의 변화와 그 원인 -」, 『대구사학』 154, 대구사학회, 2024, 16쪽).

의 원정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일본 원정의 중요성에 따라 직할 통치된 대 탐라 정책도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당시 충렬왕은 원에 병탄된 영토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서경이 포함된 동녕부의 경우 고려 조정에서 수차례 탄원하여 1290년에 되찾을 수 있었다. 서북면을 수복한 충렬왕은 기세를 몰아 탐라의 지배권도 회복하려 하였다. 충렬왕은 원 성종(成宗)에게 탐라의 환속이 포함된 사사(四事)를 건의하였다. 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이 4가지 일을 황제에게 아뢰었다. 첫째, 탐라를 돌려줄 것, 둘째, 잡혀간 백성을 돌려줄 것, 셋째, 공주를 책봉해줄 것, 넷째, 왕에게 작위를 더해줄 것이었다. 황제가 명령하기를, ‘탐라는 고려에 다시 예속케 할 것이다. …’”⁴⁰⁾

충렬왕은 원 성종에게 탄원하면서 탐라 귀속을 제일로 두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충렬왕이 쿠빌라이 사후에 바로 탐라 귀속을 요청한 데에는 그가 새로 즉위한 원 성종의 고모부였기 때문이다. 이어 충렬왕은 탐라 귀속 외에 자신의 부인이자 원 성종의 고모인 제국대장공주의 책봉을 거론하여 원 황실의 종친으로서 협상력을 올리고자 하였다. 결국 원 성종은 충렬왕의 요구를 받아들여 탐라를 고려의 군현으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충렬왕은 탐라를 반환받자 즉각 전라도지휘사(全羅道指揮使)를 탐라에 파견하고,⁴¹⁾ 탐라의 공식적인 명칭을 ‘제주(濟州)’로 바꿨다. 또한 충렬왕은 탐라에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최서(崔瑞)를 목사(牧使)로 파견하였

40)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0年 5月 甲寅 “王以四事, 奏于帝. 一, 請歸耽羅. 二, 請歸被虜人民. 三, 請冊公主. 四, 請加爵命. 帝命, ‘耽羅還隸高麗’ …”

41)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0年 7月 戊午 “以大將軍吳仁永爲全羅道指揮使往耽羅.”

다.⁴²⁾ 그리고는 성주 고인단(高仁旦)과 왕자 문창유(文昌裕)에게 홍정(紅靽)과 아홀(牙笏), 모자, 양산, 신발을 각 1개씩 하사하였다.⁴³⁾ 고려의 제주목 설치의 탐라인 위무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고려전기와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 조정이 탐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다.

다만 탐라는 원의 14개 국립 목장 중 하나였고 탐라마를 비롯한 한 여 러 축산품의 생산지였기 때문에 원에서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다.⁴⁴⁾ 1296년 원나라는 탐라 목장의 관리를 위해 탐라목축사(耽羅牧畜事)로 단사관(斷事官) 무을치(木兀赤)를 파견하였다.⁴⁵⁾ 그런데 원나라는 탐라를 반환받은 고려가 탐라마(耽羅馬)를 진헌하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목장을 비롯한 경제적 권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인지한 것 같다. 이 때문에 원나라는 1300년에 돌연 탐라총관부를, 1301년에 탐라군민총관부를 설치하였다.⁴⁶⁾

42)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全羅道 耽羅縣 “翊年乙未, 改爲濟州, 始以判秘書省事崔瑞, 爲牧使.” 『高麗史』에 등장하는 ‘濟州’라는 명칭은 고려 高宗 시기부터 확인된다. 그러나 지리지에서는 탐라 귀속 이후인 1295년에 개칭했다고 한다. 즉, 제주란 이름은 고종 시기에 탐라의 별칭으로 존재했으며, 충렬왕 시기에 귀속과 더불어 고려의 영토임을 공표하기 위해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는 제주에 지방행정의 거점인 牧을 두면서 기존의 7품 현령이 아닌 고위 관직자인 3품 목사를 파견하여 반환된 제주 사회의 안정과 중앙정부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43)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0年 11月 庚戌 “賜耽羅王子文昌裕, 星主 高仁旦, 紅靽·牙笏·帽·盖·靴, 各一事. 耽羅今歸于我, 故有是賜. 然進馬于元, 不絕.”

44) 최윤정, 「몽골의 탐라에서 고려의 제주로 - 13~14세기 탐라 관할권의 변화와 그 원인 -」, 『대구사학』 154, 대구사학회, 2024, 16쪽.

45)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2年 2月 乙丑 “元以耽羅牧畜事, 遣斷事官木兀赤來.”

46) 『元史』 권20, 本紀20 成宗 鐵穆耳 大德 4年 6月 甲子 “置耽羅總管府.” 『元史』 권63, 志15, 地理6 “耽羅軍民總管府. 【大德五年立.】”

이 무렵 군민총관부는 군사 단위라기보다 경제 단위였다. 당시 원에서 총관부는 재정 관리 기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총관부에는 동야(銅冶) 타포(打捕) 응방(鷹坊) 공장(工匠)에 관련된 민호들로 구성되었으며, 무역 행정에도 개입하고 있었다. 또한 조세 수취를 담당한 전운사(轉運使)와 같을 정도로 재정에 개입하고 있었다.⁴⁷⁾ 즉, 원나라는 탐라의 고려 귀속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별개로 경제적 권익을 확고히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원이 재차 탐라를 지배하려하자 고려 조정은 위기를 느끼고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고려 조정은 원에 총관부 혁파를 요청하여 수복한 영토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어 고려 조정은 정책을 추진하려한 상국(원)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탐라에 출몰하는 왜구 방비를 명분으로⁴⁸⁾ 고려 내에 이미 설치된 것과 같은 만호부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⁹⁾ 결국 원나라는 고려 조정의 대안을 받아들여 1301년에 탐라군민총관부를 탐라만호부로 개편하고 정동행성에 속하게 하였다.⁵⁰⁾ 탐라만호부는 원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 주재하며 고려의 제주목사 및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갔다.⁵¹⁾ 그 결과 탐라는 원에 완

47)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00~101쪽.

48)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7年 5月 庚戌 “伏念, 蕞爾耽羅, 接于倭國, 恐姦人災來忽往, 或漏事情, 令戍卒嚴警肅裝, 不容窺覘. 於是, 謂在軍官而作帥, 宜加宣令以播威.”

49)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7年 5月 庚戌 “今承中書省咨, 奏准設立耽羅軍民總管府, 勢有大乖, 事非本望. 倘許從便而毋固, 第期無失於所施, 令罷耽羅總管府, 依舊隸屬本國, 開置萬戶府, 如合浦鎮邊事.”

50)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7年 5月 庚戌 “中書省移咨, 略曰, ‘征東省欲依慶尙·全羅道鎮邊萬戶府例, 於耽羅, 設立萬戶府事, 奉聖旨, 可依所請者.’”

51) 이강한, 「고려 후기 만호부(萬戶府)의 '지역단위적' 성격 검토」, 『역사와 현실』 100, 한국역사연구회, 2016, 254~255쪽.

전히 넘어가지 않고 고려령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호부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탐라 내에서 원의 영향력은 상존하게 되었고, 탐라를 둘러싼 여-원 양국의 이해관계는 계속되었다.

III. 대원(對元) 제주 방물 및 탐라마 진헌

1294년 원으로부터 탐라를 돌려받은 고려는 본격적으로 탐라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충렬왕은 탐라의 이름을 제주로 바꾸고 외관(外官)을 파견하였으며 성주에게 물자를 하사하여 다시금 고려 조정의 존재를 드러냈다. 더불어 고려 조정은 제주에 상주해있던 다루가치를 회유하여 몽골인들이 정착한 탐라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⁵²⁾

그런데 고려는 돌연 ‘제주 방물’을 원에 바치기 시작하였다. 고려라는 국가단위로 공물을 원에 진상한 것이 아닌 제주의 이름으로 원에 들어가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방물 제공이 제주가 귀속되자마자 시작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려가 제주를 반환받는 대가로 원과 약정된 사안을 실행에 옮긴 것일 수도 있다. 고려 조정은 원과의 약조에 따라 공물을 바쳐야 하는데, 20여 년 동안 비(非)제주 지역 물자를 원에 바치느라 고통을 받아온 제주민을 배려하기 위해 토산물만을 수취하여 진상했을 가능성도 있다.⁵³⁾ 또한 고려가 제주 방물의 대원 진헌에 있어 납부의 주체가 됨으로써 제주의 지배권이 명실상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려는 원의 방물 진헌을 명

52)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0年 11月 乙卯 “賜耽羅達魯花赤織金衣二襲.”

53)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99쪽.

분으로 제주에 공물을 수취하고, 나아가 중개(운송) 과정에서 재정적인 이윤을 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근대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산의 경우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물산에 비해 그 다양성이 두드러졌기에 고려 입장에서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후대의 조선은 제주의 성주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타 지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제주의 토산물을 공납(貢納)이란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바치게 하였다.

기록상에서 '탐라 귀속' 이후 고려의 대원 제주 방물 진헌은 1295년부터 시작되었다. 고려 조정은 장군(將軍) 서광순(徐光純) 등으로 하여금 배 65척으로 미곡 8,568석을 싣고 원나라 요양(遼陽)으로 보내면서, 중랑장(中郎將) 조침(趙琛)으로 하여금 제주 방물로 저포(苧布) 100필, 목의(木衣) 40벌, 포(脯) 6상자, 오소리 가죽[獾皮] 76장, 들 고양이 가죽[野猫皮] 83장, 누런 고양이 가죽[黃猫皮] 200장, 고라니 가죽[麀皮] 400장, 말안장 5벌을 바치게 한 것이다.⁵⁴⁾ 이후로 고려는 원에 정기적으로 제주 방물을 바친 것으로 보인다. 방물은 주로 소와 말을 목축하면서 생산되는 가죽과 소고기, 오늘날 우유에 해당하는 수유(酥油)가 대표적이었다. 1296년 5월에 장군(將軍) 이연송(李連松)을 원으로 파견하여 제주의 가죽물품을 바쳤고,⁵⁵⁾ 1297년 1월에는 낭장(郎將) 황서(黃瑞)를 원에 파견하여 금화옹기(金畫甕器)와 꿩 및 제주의 소고기를 바쳤다.⁵⁶⁾ 이어 동년 11월 상장군(上將軍) 김연수(金延壽)를 원에 파견하여 고려 본토의 인삼과 제주의 수

54) 『高麗史節要』 권21, 忠烈王 21年 閏4月;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1年 閏4月 庚午 “遣中郎將趙琛如元, 進濟州方物, 苧布一百匹, 木衣四十葉, 脯六籠, 獾皮七十六領, 野猫皮八十三領, 黃猫皮二百領, 麀皮四百領, 鞍轡五副.”

55)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2年 5月 己卯 “遣將軍李連松如元獻耽羅皮貨”

56)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3年 1月 壬午 “遣郎將黃瑞如元獻金畫甕器野雉及耽羅牛肉.”

유(酥油)를 바쳤다.⁵⁷⁾ 1298년 5월에 고려는 제주 방물을 원에 바치고, 11월에는 장군 이백초(李白超)를 원으로 보내 제주의 소고기를 바쳤다.⁵⁸⁾ 1301년 12월에 고려는 사재윤(司宰尹) 정량(鄭良)으로 하여금 원에 제주의 수유를 진상하였다.⁵⁹⁾ 이러한 고려의 제주 방물 진헌은 기록된 것 외에도 적지 않은 양이 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정기성을 띄고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⁶⁰⁾

그렇다면 방물로 제공된 제주의 물산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후한서(後漢書)』와 『위서(魏書)』에는 고대 탐라에 해당하는 주호의 물산에 대하여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고 하며, ‘배를 타고 한중(韓中)과 교역한다.’라고 하였다.⁶¹⁾ 여기서 주호인들은 가축인 소, 돼지와 밀접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주변국과의 무역에 가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탐라의 물산으로는 504년 고구려의 사신 실불진(悉弗進)이 북위(北魏)의 세종(世宗)에게 올린 말 가운데 섭라(涉羅)의 가(珂)가 보인다.⁶²⁾ 가에 대해서는 흰 옥돌 또는 조개로 만

57)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3年 11月 戊寅 “遣上將軍金延壽如元獻人參及耽羅酥油.”

58) 『元史』 권19, 本紀19, 成宗 鐵穆耳 大德 2年 5月 己酉 “耽羅國以方物來貢”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4年 11月 甲申 “遣將軍李白超如元獻耽羅牛肉.”

59)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7年 12月 丙寅 “司宰尹鄭良進酥油, 上護軍李白超進人參.”

60)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復位元年 7月 己酉 “元遣宦者李三真來罷獻耽羅牛肉.” 수유의 경우 원 무종의 제주 牛肉 진헌 중지 조치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제공됐는데, 1339년 8월 『高麗史』 권36, 世家36, 忠惠王 復位年 8月 辛卯 및 1349년 8월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元年 8月 癸卯) 기사에서 확인된다. 단적이기는 하지만 제주 방물이 꾸준히 원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後漢書』 권85, 東夷列傳75, 三韓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人短小, 髡頭, 衣草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

62) 『魏書』(E100, 列傳88, 高句麗; 『三國史記』(E19, 高句麗本紀7, 文咨王 13年 4月 관련 사료에서 涉羅를 신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탐라를 지칭

든 말 재갈 장식으로 보거나, 석영의 일종인 마노로 파악하기도 한다. 『수서(隋書)』와 『신당서(新唐書)』에서도 탐라의 토산물에 대해 노루와 사슴, 가축의 가죽 등을 언급하고 있다.⁶³⁾

고려시대에 와서는 전대에 비해 다양한 물산들이 등장하고, 소를 비롯한 가축을 통해 축산품이 생산되었다. 문종대(文宗代)인 1053년 3월에는 매해 바치는 굴을 100포자(包子)로 개정하고 항구한 제도로 삼았다고 한다.⁶⁴⁾ 1053년 2월에는 탐라가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육(螺肉), 비자(榧子), 해조(海藻), 거북이 등껍질[龜甲] 등을 바쳤다.⁶⁵⁾ 1079년 11월에는 탐라구당사(耽羅勾當使) 윤응균(尹應均)이 큰 진주 두 매(枚)를 바쳤는데,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당시 사람들이 야명주(夜明珠)라 불렀다고 한다.⁶⁶⁾ 다만 이러한 탐라의 물산은 더 세분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 초의 풍토를 다룬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토공(土貢)이 대모(玳瑁)·표고·우무[牛毛]·비자·감굴·유자·유감(乳柑)·동정굴(洞庭橘)·금굴(金橘)·청굴(靑橘)·돌굴[山橘]·전복·인포(引鮑)·퇴포(槌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곤포(昆布)·돌유자나무[山柚子木]·이년목(二年木)·비자나무[榧子木]·좋은 말[良馬]이

한 것으로 본다.

63) 『隋書』(E81, 列傳46, 百濟; 『新唐書』(E220, 列傳145, 東夷 流鬼

64) 『高麗史』 권7, 世家7, 文宗 6年 3月 壬申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 從之.”

65) 『高麗史』 권7, 世家7, 文宗 7年 2月 丁丑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 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彩段·藥物.”

66) 『高麗史』 권9, 世家9, 文宗 33年 11月 壬申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요, 약재는 진피(陳皮)·마부리(山藥)·석골풀[石]·초골풀[草]·소태나무 열매[川練子]·구리대부리[白芷]·팔각(八角)·영릉향(零陵香)·오배자(五倍子)·치자·향부자(香附子)·모과·뫓미나리[柴胡]·푸른굴겉질[靑皮]·백변두(白扁頭)·바곳[草烏頭]·엄나무겉질[海東皮]·후박(厚朴)·오징어뼈·두충(杜沖)·순비기나무열매[蔓荊子]·석결명(石決明)·끼무릇뿌리[半夏]·누른국화[黃菊]·녹용·박상(舶上)·회향(茴香)·탱자겉데기[枳殼]다.”⁶⁷⁾

고려시대 전 시기 동안 바쳐진 굴의 경우 감귤, 유자, 유감, 동정굴(洞庭橘), 금귤(金橘), 청귤(靑橘), 돌귤(山橘) 등으로 많은 품종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전근대 토산물의 경우 기후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식생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와 관련된 축산품의 경우도 고려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제주 사람들은 집집마다 목축을 하여 수백 마리를 사육하고 검정소, 누런소, 얼룩소가 있는데 뿔이 매우 아름다워 술잔으로 만들만하다고 하였다.⁶⁸⁾ 또한 비자(榧子)의 경우 상록침엽 교목(喬木)으로 구충, 소적(消積), 윤장(潤腸)의 효능이 있는 등 약재로 분류된다. 요컨대 비자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약재로 분류된 식생들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고려에 유입된 탐라의 물산은 다방면에서 유용했을 것이다.

원 간섭기에는 축산품과 약재, 해산물, 굴 등이 골고루 포함된 고려전

67) 『世宗實錄』 권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厥土風氣暖, 俗癡儉, 墾田三千九百七十七結. … 土貢, 玳瑁, 薰膏, 牛毛, 榧子, 柑子, 柚子, 乳柑, 洞庭橘, 金橘, 靑橘, 山橘, 全鮑, 引鮑, 槌鮑, 條鮑, 烏賊魚, 玉頭魚, 昆布, 山柚子木, 二年木, 榧子木, 良馬. 藥材, 陳皮, 山藥, 石斛, 草薺, 川練子, 白芷, 八角, 零陵香, 五倍子, 梔子, 香附子, 木瓜, 柴胡, 靑皮, 白扁豆, 草烏頭, 海東皮, 厚朴, 烏魚骨, 杜沖, 蔓荊子, 石決明, 半夏, 黃菊, 鹿茸, 舶上, 茴香, 枳殼.”

6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土產

기와 달리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소리·고양이·고라니 가죽, 가죽물품, 말, 소고기, 수유, 육포 등 축산품 위주로 바치고 있다. 이는 탐라인들이 유목민적 습속이 있던 몽골인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축산품을 바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 물산들이 탐라 귀속 직후 제주 방물이란 이름으로 원에 들어간 것을 상기했을 때 탐라인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고려 조정이 제주에서 생산된 모든 물산을 무조건적으로 징발한 것이 아닌 원에 진상될 물품을 선별했음을 시사한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오랫동안 지배층에게 제공된 굴 등의 과일과 백성들의 주식인 해산물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했고, 오랜 전화(戰禍)와 가뭄, 질병으로 고생한 백성의 구휼을 위해 약재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상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문종대에 굴을 바치는 것을 항구한 제도도 정착시킨바 있기 때문에 고려는 제주에 대한 국내용 방물 징수를 별도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려는 대원 제주 방물을 자국의 장수들을 시켜 운송시키며 군사력을 동반하였다. 이는 제주 방물 진현 과정에서 다루가치를 포함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고려 조정에서 대원 방물 중 일부 물자를 수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제주에서 물자가 원의 대도(大都)로 들어가려면 해로로 이동하되 서해안과 요동 반도를 따라 들어가는 연안 항로를 이용해야 했다. 따라서 중간에 개경 인근의 예성항(벽란도)을 들릴 수밖에 없었다.⁶⁹⁾

고려 조정이 제주 방물을 국내용과 대원 진현용으로 구분하고, 대원 진현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추구했다면 많은 양의 방물을 준비해야 하는 제주민의 고충은 컸을 것이다. 그리고 10여년 후 지방관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제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

69) 遼代와 金代에 고려 사신은 육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요동 연안 항로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였다. 元代에는 중국 대륙 전체가 단일국가의 지배 아래 들어갔기에 요동 항로가 다시 이용되었다.

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왕이 상왕(上王, 충선왕)의 균지(鈞旨)에 따라 대호군(大護軍) 장공윤(張公允)과 제주부사(濟州副使) 장윤희(張允和)를 순군(巡軍)에 가두었다가 얼마 후 장공윤을 자연도(紫燕島)로, 장윤희를 영흥도(靈興島)로 유배 보냈다. 대개 탐라에서 적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2명의 탐욕과 포악함 때문이었다.”⁷⁰⁾

기록에 따르면 충숙왕이 상왕으로 물러난 충선왕의 명령을 받아 대호군(大護軍) 장공윤(張公允)과 제주부사(濟州副使) 장윤희(張允和)를 처벌했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상왕인 충선왕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선왕은 재위기간 중 대부분을 원에 머물면서 전지(傳旨) 정치를 하여 국정을 운영한바 있는데, 이에 대신들은 원거리 통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귀국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충선왕은 귀국하지 않고 1313년에 아들 충숙왕에게 양위하고 상왕이 되었다. 충선왕이 건재하면서 충숙왕의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공윤과 장윤희에 대한 처벌은 전·현직 국왕 간의 정치적 갈등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제주민의 반란을 촉발한 두 사람의 관직을 통해 이들이 제주 방물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공윤의 관직인 대호군은 중앙군 조직의 무장이고, 장윤희의 관직인 제주부사는 현지의 지방관이다. 과거에 제주 방물을 운반할 때 무장들이 전담했고, 지방관이 방물의 징수를 맡은 위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두 인물에 대한 제주민

70)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5年 4月 戊申 “王以上王鈞旨, 囚大護軍張公允, 濟州副使張允和于巡軍, 尋流公允于紫燕島, 允和于靈興島. 盖耽羅賊起, 由二人貪暴也.”

의 반기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장공윤과 장운화는 고려 조정의 제주 방물 관련 임무를 수행하다가 참지 못한 제주민의 반기에 직면했고, 고려 조정에서는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을 유배 보낸 것으로 보인다. 12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려 조정의 제주 방물 진현이 1318년 무렵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가 제주 방물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제주 지역에 대한 영유권 강화와 지역 특산물 및 국가 재정의 확보라면, 중국 대륙을 지배한 원나라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물자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제주 방물을 주목했을까. 물론 원나라가 처음부터 제주 방물을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원 조정은 다루가치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제주민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수취하고 있었다.

원나라는 제주 지역에서 철이나, 향장목(香樟木)을 수취하였다.⁷¹⁾ 이어 원 조정은 청자[靑砂], 향아리[甕], 동이[盆], 병(瓶)을 가져갔다.⁷²⁾ 이들 물자들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기록된 굴이나 약재, 축산품 등의 제주 물산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그런데 당시 원에서는 고려에도 금칠(金漆)·청등(靑藤)·팔랑충(八郎虫)·비자나무[樅木]·노태목(奴台木)·오매(烏梅)·화리(華梨)·등석(藤席) 등의 다양한 물자를 요구하거나, 화살에 쓰일 철을 징발하였으며 황제의 어상(御床)에 쓸 향장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⁷³⁾ 즉, 원에서는 고려나 탐라에 필요에 따라 물자를 징발한 것이다. 다만 원은 자국이 지배하는 탐라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간헐적으로 일용품 위주의 비토산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탐라 사회의 전화(戰

71)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6年 8月 癸酉;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9年 1月 癸亥 “元遣伯刺介來, 求耽羅香樟木.”

72)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5年 8月 戊午 “耽羅安撫使忽都塔兒, 還自元. 中書省牒, 求靑砂甕·盆·瓶.”

73)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2年 6月 乙卯;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4年 3月 壬午;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元年 11月 癸巳

禍)가 일정부분 수습되고 이주한 목호들로 인해 축산품 생산이 늘면서 원에서는 제주 물산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원나라는 제주에서 진귀품이자 진주조개에서 채취할 수 있는 진주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⁷⁴⁾ 원나라는 임유간(林維幹)과 회회인(回回人) 아실미리(阿室迷里, 아시미리)를 보내와서 탐라(耽羅)에서 진주(眞珠)를 채취하게 하였고,⁷⁵⁾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임유간을 파견하여 진주 채취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임유간은 진주 채취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제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진주 100여개를 강탈하여 원으로 돌아갔다.⁷⁶⁾ 이렇듯 원나라에서 비토산물을 간헐적으로 수취했으나, 일부 물자의 징발 과정에서 제주민의 고충은 클 수밖에 없었다.⁷⁷⁾

한편 제주 방물과 함께 제주의 목장에서 생산되고 사육되는 탐라마도 고려와 원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었다. 탐라마의 경우 제주 지역의 주요한 물산 중 하나로 탐라 귀속 이후 고려에 의해 통제되고, 제주 방물로서 활용되는 것 같았지만 곧 원이 통제권을 가져갔다. 그렇다면 제주 방물 중 유독 탐라마 만큼은 원에서 직접 경영하려 했던 것일까.

과거 원의 쿠빌라이는 1273년에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은 뒤 그곳에 목

74) 진주조개는 한반도 남부와 제주 인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식의 범위가 광범위하진 않다. 따라서 진주를 다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무리였다. 참고로 진주는 고려 문종 시기에 바쳐져 야명주라 불리며 진귀품으로 취급된 바 있다(『高麗史』 권9, 世家9, 文宗 33年 11月 壬申).

75)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閏3月 丁酉 “元遣林惟幹及回回阿室迷里, 來採珠于耽羅.” 회회인은 위구르인을 가리킨다. 당시 원에서 위구르인은 색목인으로 분류된 계층으로 주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이 제주에 왔다는 사실을 통해 제주산 진주의 상품적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76)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6月 壬申 “林惟幹採珠耽羅, 不得, 乃取民所藏百餘枚, 還元.”

77) 원 조정이 탐라인들에게 면해준 공물이 비토산물이라는 사실을 통해 원의 통치 시기 동안 비토산물 수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元史』 권178, 列傳65 王約 “… 命故臣洪子藩為相, 俾更弊政, 罷非道水驛十三, 免耽羅貢非土產物, 東民大喜 …”).

장을 설치하고 말을 생산할 구상을 하였다. 원에서는 탐라를 방성이 입하는 곳으로 간주하였고, 그곳의 목초지는 곧 있을 일본 원정을 위해 쓰일 말을 생산할 목장으로 적격이었다. 그리하여 원에서는 1276년에 탐라총관부에 책임자인 타라치(塔刺赤)에게 몽골 종마 160필을 가져가 사육하게 하였다.⁷⁸⁾ 타라치는 원으로부터 들여온 말을 탐라 동쪽 수산평(水山坪)일대에서 방목하였다.⁷⁹⁾ 원이 탐라마를 사육한 이유는 일본 원정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탐라마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296년에 원 성종은 탐라의 목축 사무를 전담한 단사관 무을치(木兀赤)를 파견해 관리하게 하였다.⁸⁰⁾ 즉, 이 시기 탐라 목장이 원의 14개 목장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원 성종은 즉위 후 14개의 국영목장을 조성하고 지정된 가문에서 대대로 관리하도록 하였다.⁸¹⁾ 고로 탐라에 파견된 단사관 무을치 역시 국영목장의 관리를 위해 파견된 셈이었다.

14개의 국영목장이 조성되었던 장소들은 몽골의 7개 지역, 대도 주변의 3개 지역, 감숙 지역, 안휘 지역, 운남과 탐라 지역 등이었다. 탐라 목장은 다른 목장들에 비해 작지만, 화산 지대의 특성상 자연적 목초지가 풍부하고 목장의 특성에 맞게 개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목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⁸²⁾

78)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8月 丁亥 “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匹來牧.”

79)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71쪽.

80)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2年 2月 乙丑 “元以耽羅牧畜事, 遣斷事官木兀赤來.”

81) 『元史』(E100, 兵志 馬政)

82)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209쪽.

탐라마가 잘 번식되자 원은 계속해서 말을 탐라에 들여왔다. 1300년 원의 황태후 마구간 말이 탐라에 방목되기도 하였고, 탐라 목장이 아막(阿幕)으로 지칭된 것도 이때쯤으로 추정된다.⁸³⁾ 탐라 목장에서 탐라마 등의 사육은 아막에 배속된 몽골인 ‘하치(哈赤)’, 이른바 목호가 전담하였다. 목호는 몽골인 가운데서도 목축 기술이 뛰어나 원 조정에 의해 선발되어 탐라로 이주한 자들이었다. 이들 목호들은 공민왕대에 추진된 반원 정책에 맞서 탐라에서 반기를 들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방언(韓邦彦)이 제주에 이르렀다. 합적(哈赤, 카치)·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시데리비스)·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샤오쿠투부카)·관음보(觀音保) 등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감히 세조(世祖) 황제께서 놓아기르시던 말을 대명(大明)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다만 말 300필만을 보내었다. … 마침내 제주를 정벌할 것을 의논하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최영(崔瑩) 등에게 명하여 가서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⁸⁴⁾

기록에서 보이는 상황은 고려가 제주에서 탐라마를 수취하는데, 이것이 고려를 거쳐 명에 들어갈 것을 안 목호들이 집단으로 고려 조정의 명령에 불응하며 반기를 든 것이다. 원이 몰락하고 명이 흥기하는 상황에서조차 목호들의 발언을 통해 당시 제주 지역 사회에서 목호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고려 조정은 원이 몰락한 시점까지 탐라마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목호들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게 되고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14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탐라마의 통제권을 가져올 수

83)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全羅道 耽羅縣

84) 『高麗史節要』 권29, 恭愍王4 恭愍王 23年 7月

있었다.

한편 고려에서는 제주를 귀속 받았음에도 원의 목장 설치 혹은 탐라마 징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본래 제주 지역이 고려전기부터 조정에 말을 공급하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이다.⁸⁵⁾ 고려는 태조대에 중앙군 편제에서 보병 2만 3천 명과 기병 4만 명이었다. 중앙군에서 기병이 주력 부대의 역할을 맡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병 유지에는 다량의 말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므로, 고려는 태조대부터 제주 지역을 비롯한 도서 지역에서 말을 사육하여 조달받고 있었다.⁸⁶⁾ 고려시대에는 주로 역마(役馬)·승마용 등에 쓰인 소위 '향마(鄉馬)'라는 재래종과, 거란, 여진, 몽골 등지에서 유입되어 전마·수렵·승마용 등에 쓰인 이른바 '호마(胡馬)', 혹은 '적마(狄馬)'라고 하는 외래종이 있었다.⁸⁷⁾ 특히 제주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목축하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려에서도 제주에서 국가적 차원의 말 사육을 독려하여 이를 세금으로 거두고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14년(1288) 2월 마축자장별감(馬畜滋長別監)을 설치하였다. … 탐라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역적의 난 때부터 원이 섬사람들을 육지로 나아가 살게 하고 탐라는 따로 원(元)에 속하게 하니 말 사육이

85) 『高麗史』 권82, 志36, 兵2, 馬政 “諸牧場. 龍驤【黃州】, 隴西【洞州】, 銀川【白州】, 羊欄【開城】, 左牧【貞州】, 懷仁【淸州】, 常慈院【見州】, 葉戶峴【廣州】, 江陰, 東州.” 다음 사료에 기재된 지역들은 육상 지역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다만 고려시대에는 섬에서도 말 사육을 하고 있었다. 1275년에 충렬왕이 경상도·전라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여러 섬의 소와 말을 點閱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高麗史』 권82, 志36, 兵2, 馬政 “忠烈王元年七月 遣使慶尙·全羅道, 點閱諸島牛馬.”).

86) 김일우, 「고려시대 耽羅 주민들의 생업활동과 그 유형」, 『국사관논총』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24쪽.

87) 남도영, 『韓國馬政史』, 마사박물관, 1996, 138쪽.

번성하지 못하여 세공이 매우 적어졌다. 나라에서는 친조하는 일이나 정벌을 도울 일이 있으면 지방관에게 말을 바치게 하고 또 백관에게는 관품에 따라 거두며 심지어 지방의 좋은 말을 강제로 빼앗기까지 하니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약 관리를 두어 암말과 암소를 가려서 번식하게 하면 가히 장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⁸⁸⁾

충렬왕 시기 무렵까지 탐라마는 고려의 재정 수입에 있어 중요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탐라가 원에 속하게 되고 탐라마에 대한 수취권을 빼앗기자 고려는 말 수급에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 조정은 마축자장별감(馬畜滋長別監)을 설치하여 말 수급을 복구하려 했던 것이다. 마축자장별감은 흔히 원에 공물로 바칠 말의 생산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추정되어 왔다.⁸⁹⁾ 기록을 보면 탐라가 삼별초의 난 이후 ‘원에 속하게 되니’, ‘말 사육이 번성하지 못하여’라 하였고, 그 결과 고려 조정으로 들어오는 세공이 현저히 감소하여 필요시 관료들로부터 말을 수취하여 난국을 극복하고자 이 기구가 설치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즉 고려 조정은 마축자장별감을 통해 탐라마의 대안을 확보하려 하였고, 장기적으로 탐라마에 대한 수취권 회복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몽골인 목호들은 고려 조정의 탐라마 수취권 회복과 무관하게 여전히 원에 말을 바치고 있었다. 탐라 귀속 직후인 1294년에 몽골계 탐라인으로 보이는 쿠케다이(曲怯大), 몽구다이(蒙古大), 타스바투(塔思拔都)

88) 『高麗史』 권82, 志36, 兵2, 馬政 “〈忠烈王〉十四年二月 置馬畜滋長別監. … 而耽羅之出居多. 自逆賊之亂, 元令島民陸居, 而耽羅別屬於元, 馬畜不繁, 歲貢甚少, 國有親朝助征之事, 令外官獻馬, 又品斂百官, 而至奪外郡良馬, 內外苦之. 朝議以謂, ‘若置官選牝馬牝牛, 使之蕃息, 則可備將來.’ 於是 有是命.”

89)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87쪽.

등이 원에 들어가 말 400필을 바쳤고,⁹⁰⁾ 1295년에는 바이테무르(伯帖木兒)를 보내어 탐라마를 징발해간 것이다.⁹¹⁾ 그러던 중 고려가 직접 주도하여 탐라마를 수취하고 대장군 남정(南挺)으로 하여금 이를 원에 바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고려가 수취와 운송의 주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원이 직접 관여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고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에서는 탐라마와 목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 들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뜰이나 제주를 고려에 반환한 마당에 원 입장에서는 국립목장까지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나라는 다시 탐라총관부 설치를 시도하였고, 고려와의 타협을 통해 만호부 설치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만호부를 이용하여 원나라는 여전히 탐라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탐라의 목호들은 계속해서 원의 영향력 하에서 말을 생산하고 사육하였다.⁹²⁾ 다만 목호들은 제주를 다스리는 고려 조정의 통치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고려에 탐라마를 바치기도 하였다.⁹³⁾

그럼에도 고려에서는 목호들이 자신들과 원에 탐라마를 동시에 진상한다고 하더라도, 원 간섭기 이전부터 탐라마 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용(國用) 침탈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공민왕대에 고려 조정이 명에 '탐라에 관한 일'을 보고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주 지역이 오랫동안 고려의 영토였고, 원이 들어와 태복시(太僕寺)·선휘

90)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0年 5月 甲寅 “耽羅人曲怯大·蒙古大·塔思拔都等如元, 獻馬四百匹.”

91)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1年 3月 庚午 “元遣伯帖木兒來, 取馬于耽羅.”

92) 『高麗史』 권37, 世家37, 忠穆王 3年 8月 戊寅 충목왕 시기에도 여전히 원이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말을 징발하는 기사이다.

93)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2年 6月 戊申 “耽羅萬戶文阿但不花遣弟仁富, 獻羊馬.”

원(宣徽院)·중정원(中政院)·자정원(資政院) 등의 기관이 말과 노새를 방목했음을 거론하였다. 이어 고려 조정이 제주 관리로 하여금 토착민들에게 탐라마를 맡겨 기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⁹⁴⁾ 이 표문은 1370년에 명에 들어간 것인데,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후반까지 탐라마 통제권 확보에 있어 고려 조정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IV. 제주 방물 진헌의 정치·외교적 의미

1273년 고려는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면서 탐라를 원에 빼앗기고 말았다. 당시 고려는 원에 의해 서북면(북계)과 동북면(동계) 일부 지역을 병탄당하면서 그 땅에는 각각 동녕부와 쌍성총관부가 세워졌다. 고려는 원과의 강화를 체결하면서 소위 ‘세조구제(世祖舊制)’를 보장받고 사직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화를 맺었음에도 원의 영토 침탈이 발생하면서 고려에서는 위기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탐라는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된 지역이지만, 고려가 추구해온 ‘해동천하(海東天下)’를 구성하는 주요 지역 중 하나였다.

문종대에 고려는 해동천하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해동’은 고려를 뜻하는 표현 중 하나였다. 지리적 범주로서 중원에 대한 상대적 의미를 가짐은 물론이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을 넘어 ‘고려의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군자의 나라로서 해동이 있으며, 그 해동은 천명을 받

94) 『高麗史』 권42, 世家42, 恭愍王 19年 7月 甲辰 “伏望, 體容光之日月, 辨同器之薰蕕, 將前朝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 所放馬匹驪子等, 許令濟州官吏, 照依元籍, 責付土人牧養, 時節進獻.”

은 태조 신성대왕과 용손(龍孫)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의미를 가진 것이다. 또한 이 인식은 송에서 고려 문종에게 '경(卿)은 요좌(遼左)에 있으니 이는 실로 해동(海東)이다.'라고 한 부분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였다. 고로 해동은 지리적인 구분이자 독자적인 문명권을 구분 짓는 의미가 되었다.⁹⁵⁾

해동천하는 송과 요, 서하, 고려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던 11세기에 고려만의 독자적 세력권을 규정하였다. 해동천하의 범주 속에서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만주의 서여진과 동여진, 동북여진 등은 서번(西蕃), 동번(東蕃), 북번(北蕃), 북적(北狄)으로 불렸고 탐라를 남만(南蠻)이라 여겼다. 그런데 12세기 초 고려가 번국으로 여긴 여진이 통합되어 금을 건국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고려는 한동안 금을 '호적(胡狄)'이라 했지만 형세적으로 더는 그렇게 부를 수 없게 되었다.⁹⁶⁾ 이 때문에 동·서번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천리장성 이내의 양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⁹⁷⁾ 이제 고려의 천하 관념 속에 남은 실질적인 번국은 '우산국'과 '탐라국'이 있었다. 그런데 우산국의 경우 현종대에 동여진 해적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이후 국가로서 기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남은 번국은 사실상 탐라 밖에 없었다.⁹⁸⁾ 다만 탐라는 숙종대 이후로 국가가 아닌 탐라현이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당시 고려 사회에서는 탐라를 여전히 번국으로 인식하였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풍입송(風入松)」에는 “남만(南蠻)과 북적(北狄)이 스스로 내조(來朝)하여”라는 구절이 있다.⁹⁹⁾ 여기에서 남만과 북적은

95) 한정수, 「고려 문종 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9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93쪽.

96) 『高麗史』 권17, 世家17, 金富軾贊 “詞臣應制, 或指北朝爲胡狄 …”

97) 추명엽, 「탐라 성주(城主)·왕자(王子)의 기능과 고려의 천하관념」, 『한국중세사연구』 73, 한국중세사학회, 2023, 27쪽.

98)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13年 7月 丙子 “都兵馬使奏, “于山國民, 被女眞虜掠逃來者, 處之禮州, 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

고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복적은 여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만은 탐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고종대의 문인이 이규보(李奎報)의 「우루상관조증동요김군(又樓上觀潮贈同寮金君)」라는 시에서 ‘남만(南蠻)’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남만은 탐라를 의미한다.¹⁰⁰⁾ 13세기 초중반 이규보가 살던 시기에도 탐라를 남만으로 부르고 있던 것이다. 탐라가 군현으로 편제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려의 천하관이 투영되고 있던 셈이다.

이처럼 탐라는 원의 간섭으로 자주성을 침해받던 고려에 있어 자신들의 천하관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이 탐라를 점령하여 고려의 세력권에서 분리시키자 고려 조정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20여년에 걸쳐 반환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또한 고려는 기회가 되면 탐라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단적으로 고려 조정은 1276년 탐라 성주가 개경에 들어와 입조하자 4품의 품계를 부여하였다.¹⁰¹⁾ 당시 제주목사의 품계가 3품이었음을 고려하면 성주에게 그 아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고려전기 7품 현령 아래에 위치한 성주와 비교하면 우월한 지위를 제공한 것이다.¹⁰²⁾ 1282년에는 고려 조정에서 탐라에 방호부사를

99) 『高麗史』 권71, 志25, 樂2 俗樂 風入松 “海東天子當今帝, 佛補天助敷化來。理世恩深, 遐邇古今稀。外國躬趨盡歸依, 四境寧清罷槍旗, 盛德堯湯難比。且樂太平時, 是處笙簫聲鼎沸。并闐樂音, 家家喜祈祝, 焚香抽玉穗。惟我聖壽萬歲, 永同山嶽天際。四海昇平有德, 咸勝堯時。邊庭無一事, 將軍寶劍休更揮。南蠻北狄自來朝, 百寶獻我天墀。金階玉殿呼萬歲, 願我主長登寶位。對此大平時節, 絃管歌謠聲美。主聖臣賢, 邂逅河清海宴。梨園弟子, 奏霓裳白玉簫我皇前。仙樂盈庭皆應律, 君臣共醉太平筵。帝意多懽, 是此日銀漏, 莫催頻傳。文武官寮拜賀, 共祝皇齡。天臨玉輦廻, 金闕碧閣繞祥烟。繽紛花黛列千行, 笙歌寥亮盡神仙。爭唱還宮樂詞, 爲報聖壽萬歲。”

100) 『東國李相國集』 권16 古律詩 「又樓上觀潮 贈同寮金君」

101)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4月 癸酉 “耽羅星主來朝, 命序四品之下。”

102)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86~87쪽.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¹⁰³⁾

이후 1294년 충렬왕의 요청으로 고려는 탐라를 제주란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제주 방물'을 원에 진현하기 시작하였다. 고려가 원에 제주산 물자를 바침으로써 제주민에 대해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명분과 권한을 얻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부세(賦稅)는 고려가 제주 사회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의 지배에서 이제 갓 벗어난 제주민에게 고려 조정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과거 제주는 탐라현 시기에도 지방관의 수탈로 몇 차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지역민을 위로하면서 제주 물산을 거둘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먼저 고려 조정은 제주 방물을 수취함에 있어 제주민 외에 당시 제주에 정착해 있던 몽골인들에게도 물자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몽골인들이 세월이 흘러 제주 사회에 일정부분 융화되었고, 이들이 목호로서 말과 소, 양 등의 가축을 사육했으므로 고려는 원에 방물을 바친다는 명분으로 축산품을 청구하여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축산품의 경우 제주민 외에 몽골인들도 함께 생산했기에 고려 조정에서는 이것을 제주의 다른 토산물보다 더 용이하게 획득했을 것이다. 고려가 제주 방물의 운송을 전담하면서 일부 물자를 빼내어 재원으로 삼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원의 국영목장에서 생산되는 탐라마 만큼은 고려에서도 통제를 시도했으나 원의 영향력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울러 제주 방물 수취는 고려의 자원 확보 정책과도 관련이 있었다. 13세기 중후반 고려의 재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고려는 오랜

103)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8年 9月 乙亥 “以洪子翰爲耽羅防護副使.”
1281년부터 고려국왕은 정동행성의 승상을 겸하게 되었으므로 정동행성 승상의 이름으로 탐라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여-몽 전쟁을 겪으면서 재원인 대부분 농지가 황폐화되었으며, 백성들은 유리결식하여 세금으로 납부할 물자를 생산할 수 없었다. 여기에 고려는 1270년부터 1290년대 초까지 원의 일본 원정 준비 과정에서 다량의 미곡이 계속 유출되어 재정 상태가 나아질 수가 없었다. 고려에서는 원에 의해 농우(農牛)가 수탈되자¹⁰⁴⁾ 원 조정에 요청하여 “농기구·농우·종자·식량이란 것은 모두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어서 이것을 다 빼앗아 군대에 공급하면 여기 삼한(三韓)의 남은 백성은 거둬 기아 상태에 빠져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매한 저는 이 점을 민망히 여기고 있으니, 폐하께서 밝게 살펴주시기만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라며 자국의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¹⁰⁵⁾ 이러한 상황에 고려 조정은 재원 회복의 한 방법으로 침탈된 영토에 대한 귀속을 꾀하였던 것이다. 1290년에 고려는 세조구제를 명분으로 서경(西京)이 포함된 서북면의 반환을 요구했고,¹⁰⁶⁾ 원 조정이 이를 승인하자 1294년에 탐라의 환속을 추진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수복한 영토에서 조세와 방물을 수취하여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고려 조정이 탐라의 물산을 ‘제주 방물’이라 칭한 것도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탐라라는 고유 지명을 제주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개칭하여 대내외적으로 고려의 제주 지배가 확고하다는 의지를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제주’란 지명이 들어간 방물을 제주민에게 부과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진 ‘고려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주입하려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제주민이 고려 본국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다음의 사료를 통해 그러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104)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2年 3月 丙寅

105)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2年 3月

106) 『高麗史』 권21, 世家21, 忠烈王 16年 3月 “帝詔罷東寧府, 復歸我西北諸城. 王拜其摠管韓愼桂文庇爲大將軍, 玄元烈爲太僕尹, 羅公彥李翰爲將軍.”

“탐라현은 바다 가운데 있어 스스로 먼 곳의 이역 땅[殊疆異壤]이라고 하면서 비록 왕의 교화에 복종하면서도 누차 법령[條教]을 범하였다.”¹⁰⁷⁾

이 기록은 13세기 초 탐라안무사를 지낸 장윤문(張允文) 묘지명의 일부 내용으로, 장윤문이 탐라현령으로 파견되었을 때의 일을 기술하고 있다. 첫 문장에서 탐라는 현이라 하여 고려의 영토로 지칭하면서도 ‘수강이양(殊疆異壤)’, 즉 다른 나라의 강역으로 일컫고 있다. ‘수강이양’은 태조의 훈요 10조 중 4조의 ‘수방이토(殊方異土)’와 유사한 표현이다.¹⁰⁸⁾ 내용상 수방이토는 중국에서 바라본 외국으로서의 고려를 의미하지만, 해당 묘지명에 나타난 수강이양은 문장 그대로 외국의 강토이며 이를 탐라인들 스스로가 인식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기록을 통해 탐라인은 고려 조정에 대해 물리적인 거리감 외에도 심적 거리감도 동시에 느꼈음을 알 수 있다.¹⁰⁹⁾ 그리고 제주 지역이 고려와 이질적인 감정을 간직한 채 원에 20여 년의 지배까지 받았으니 고려 조정으로서는 지배권 강화 차원에서도 제주민을 고려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던 것이다.

다만 장기간 원에 의해 수탈을 당한 제주민에게 부세(賦稅)하는 것은 자칫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인지라 고려에서는 강압적인 통치를 강요하기 보단 기존의 토착 지배자인 성주를 통해 일정부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고려는 성주에게 예물을 주어 고려에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회유하기도 하였다.¹¹⁰⁾ 그러나 성주는 고려의 방물 부세를 비롯한 통치 강

107) 『張允文墓誌銘』 “耽羅縣在海中，自以謂殊疆異壤，雖賓王化，屢犯條教。”

108)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26年 4月 癸卯 “其四曰，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殊方異土，人性各異，不必苟同。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衣冠制度，慎勿效焉。”

109) 추명엽, 「탐라 성주(星主)·왕자(王子)의 기능과 고려의 천하관념」, 『한국중세사연구』 73, 한국중세사학회, 2023, 25쪽.

110)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0年 11月 庚戌 “賜耽羅王子文昌裕，星主 高

화를 자치권 침해로 보았다. 그것은 공민왕대인 1362년에 일어난 몽골인 목호 쿠투부카(古秃不花)와 시데리비스(石迭里必思)가 성주 고복수(高福壽)와 함께 일으킨 반란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¹¹¹⁾ 또한 우왕대인 1386년에도 제주에서 자주 반란이 일어나자 고려 조정은 신료를 보내 성주 고신걸(高臣傑)을 회유하여 그와 그의 아들 고봉례(高鳳禮)를 고려로 데리고 돌아왔다. 이어 기록에서는 ‘탐라가 귀순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¹¹²⁾ 라고 기재하여 고려 말까지도 성주의 자치권이 여전히 높았음을 시사한다. 충렬왕대 탐라 귀속 직후에 시행된 고려 조정의 제주 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 방물이 궁극적으로 ‘고려인’이라는 소속감을 주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고려는 원에 제주 방물을 바침으로써 실리를 얻을 수 있었다. 탐라가 고려에 환속되기 직전인 1293년 원 조정은 출범시킨 수역 노선망에 탐라를 포함시킨바 있다. 1280년대 말 원 조정은 요양에서 발생한 카다안의 난 진압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는데, 그에 따라 진압군에게 제공할 군량미와 요양 지역의 백성에게 진흥할 미곡을 위해 강남-요양을 잇는 대규모 조운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노선망의 중간 거점으로 탐라를 지정했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 강남과 탐라, 탐라와 요양 지역 등이 간접적으로나마 연결되게 되었다.¹¹³⁾ 이러한 상황에 고려가 1295년부터 제주

仁旦, 紅鞵·牙笏·帽·盖·靴, 各一事. 耽羅今歸于我, 故有是賜. 然進馬于元, 不絕.”

111)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年 8月 丙申 “耽羅牧胡古秃不花·石迭里必思等, 以星主高福壽叛.”

112) 『高麗史』 권136, 列傳49, 禡王 12年 7月 “遣典醫副正李行·大護軍陳汝義于耽羅. 時朝廷欲取耽羅馬, 且此島屢叛故, 遣行等招誘子弟. 至明年四月, 行乃率星主高臣傑子鳳禮以還, 耽羅歸順始此.”

113)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90쪽.

방물을 원에 진상한 것은 고려가 점진적으로 이 수역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제주가 원의 지배를 받을 당시 상업에 종사하던 위구르인이 방문했다는 사실은 단편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제주 방물을 교역용으로 일정부분 거래했을 가능성도 있다.¹¹⁴⁾

강남-탐라-요양 수역 노선은 1303년에 이르러 해체되었다.¹¹⁵⁾ 이는 당시 원이 내부적으로 관무역을 강화하는 무역정책에서 비롯되었는데, 원 성종이 한법적(漢法的) 차원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대외교역을 경계하고 역제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었다.¹¹⁶⁾ 이후 고려는 원의 무역 통제 정책과 더불어 해당 수역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강남-탐라-요양을 연결하는 전체 항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탐라와 요양을 연결하는 해로는 꾸준히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해당 해로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서해안 연안 항로이기 때문이다. 고로 고려가 제주 방물을 바치기 위해 서해안에서 요동 반도로 이어지는 해로를 자주 이용하면서 원대(元代) 이전 요·금 등의 정복왕조로 인해 거의 사용하지 못한 북방 해로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V.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원 간섭기에 발생한 탐라 귀속 문제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제주 방물'의 진헌을 고찰하면서 이 시기 제주 지역을 둘러싼

114)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閏3月 丁酉

115) 『元史』 권178, 列傳65, 王約 “... 命故臣洪子藩為相, 俾更弊政, 罷非道水驛十三...”

116)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110~111쪽.

여-원 양국의 이해관계와 제주의 지역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전기에 탐라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국주가 성주로 임명되는 등 속국이 되었으나 여전히 국가로서 존재하였다. 12세기 초 탐라는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탐라인의 반발에 부딪히고 위무하는 수준으로 지배하였다. 그러던 13세기 중반에 이르러 대륙을 장악한 원이 일본 원정을 계기로 탐라를 주목하여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고려는 탐라 성주와 함께 원에 입조하여 탐라의 지배권이 고려에 있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원은 고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삼별초 잔여 세력을 진압하면서 탐라에 다루가치, 초토사, 총관부 등을 두어 직접 지배하였다. 이후 20여년 뒤 원 세조 쿠빌라이가 사망하자 고려는 원 성종에게 탐라의 반환을 요청하여 돌려받게 되었다. 고려는 환속한 탐라의 이름을 제주로 변경하며 통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고려 조정은 제주를 돌려받은 직후 돌연 ‘제주 방물’을 원에 진상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탐라 귀속을 대가로 원과의 사전 약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려는 제주 방물 진현의 납부 주체가 됨으로써 제주의 지배권이 고려에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고려는 원의 방물 진현을 명분으로 제주에 공물을 수취하고 나아가 운송 과정에서 재정적인 이윤을 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려는 원에 보내는 제주 방물을 축산품 위주로 보냈고, 고려전기에 탐라로부터 받은 과일, 약재, 해조류 등의 물자들은 제공하지 않았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오랫동안 지배층에게 제공된 굴 등의 과일과 백성들의 주식인 해산물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했고, 오랜 전화(戰禍)와 가뭄, 질병으로 고생한 백성의 구휼을 위해 약재 등의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해 고려 조정이 제주 물산을 무조건 징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고려는 문종대부터 제주산 특정 물자의 항구적인 수취를 정착시킨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 방물이 원에 진상되는 것 외에 국내용으로도 수취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물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한 탐라마는 전적으로 원 조정에서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몽골인 목호들이 몽골 종마와 함께 제주에 들어와 탐라마의 생산과 사육, 목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조정은 국초부터 제주 지역에서 많은 말을 진상 받고 있었기에 탐라마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고려 조정은 마축자장별감을 설치하여 말 수급을 복구하고자 하였고 장기적으로 탐라마에 대한 수취권 회복을 모색하였다. 당시 목호들은 제주에 정착하여 영향력이 있었으므로 쉽사리 고려에 탐라마의 통제권을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려는 여타 제주 방물에 비해 탐라마 만큼은 14세기 후반까지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제주 방물이 고려의 제주 지배권 강화 차원으로 본다면, 제주는 고려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고려의 독자적 천하관인 해동천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13세기 이르면 고려의 해동천하에서 실질적으로 남은 지역은 탐라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탐라가 귀속되고 나서 제주 사회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방물 수취(부세)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 조정은 오랜 세월 '탐라인'으로 살았던 제주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진 '고려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주입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고려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탐라에서 자치권을 누리던 성주에게 반감을 주어 14세기경에 몇 차례 반란으로 이어졌다.

제주 방물의 대원 진현은 제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별개로 대외적인 실익도 있었다. 그것은 고려가 방물 운송을 직접 주도하면서 원이 설치한 강남-탐라-요양 수역 노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원이 대외무역의 통제를 위해 해당 수역을 폐지한 이후에도 고려는 꾸준히 이 해로를 통해 제주 방물을 바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려는 해당 수역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항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탐라와 요양을 연결하는 해로는 꾸준히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해당 해로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서해안 연안 항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려가

제주 방물을 바치기 위해 서해안에서 요동 반도로 이어지는 해로를 자주 이용하면서 고려전기 때 북방왕조의 흥기로 인해 거의 사용하지 못한 북방 해로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제주 방물 진현을 통해 원 간섭기 제주 지역의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원나라는 제주 방물 중 탐라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것은 국영목장과 몽골인 목호들로 유지될 수 있었다. 목호들은 원이 몰락할 무렵에도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고려 조정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고려에서는 제주 방물을 통해 원에 바칠 방물과 국내용 방물을 거두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방물은 일종의 세금이었기에 고려 조정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탐라인으로 살았던 제주민을 고려인의 정체성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치권을 가진 성주의 존재로 인해 방물 수취는 가능할지언정 제주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 간섭기에 제주는 고려령이면서 이국(異國)인 지역, 목장과 목호들로 인해 원의 영향력이 상존한 다중적 성격의 지역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2024.07.04. 투고 / 2024.08.03. 심사완료 / 2024.08.08. 게재확정)

[Abstract]

**Tamna Attribution Problem and Jeju Goods Offering
during Yuan's Intervention Period**

Park, Jung Hwan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clarify the interests of Goryeo and Yuan over the Jeju region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by considering the issue of Tamna belonging between Goryeo and Yuan during the original interference period and the provision of Jeju Goods and horses. Therefore,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utilized in this article. First, he tried to check the status of Tamna recognized by Goryeo and Yuan by examining Goryeo's efforts to restore Tamna rule, original rule, and Tamna. Second, we analyzed the Jeju Goods that the Goryeo government, which received Tamna, although formal, began to send to the Yuan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Goods. Third, by examining what the Jeju region means in Goryeo, we confirmed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ing of Goryeo's provision of Jeju Goods. Through the provision of Jeju Goo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area can be sorted out as follows. In the mid to late 13th century, Goryeo received Jeju Island back amid conflicts and negotiations with the Yuan. And Goryeo used 'Jeju Goods' to strengthen Jeju's control. However, the duty of tax payment to provide Jeju Goods alone did not change Tamna people to Goryeo people. As a result, Jeju's leadership's autonomy was valid until the end of Goryeo. In other words,

during the Yuan interference period, Jeju existed as a territory of the Goryeo, an unfamiliar area, and a multi-character area where the influence of the Yuan coexisted.

□ Keyword

King Chungnyeol, Tamna Attribution, Jeju Goods, Tamna horse, Mokho(Hachi)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節要』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三國史記』

『世宗實錄』

『隋書』

『新唐書』

『新增東國輿地勝覽』

『元史』

『魏書』

『張允文墓誌銘』

『後漢書』

<단행본>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연구논문>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원, 2016.

고수미, 「10~12세기 탐라의 대외교류」, 『동국사학』 7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고창석,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高麗前期를 중심으로-」, 『濟州大 論文集』 14, 제주대학교, 1982.

- _____, 「麗·元과 耽羅와의 關係」,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1984.
- 김경주, 「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 『야외고고학』 37, 한국문화유산협회, 2020.
- 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호서사학회, 2018.
- 김일우, 「고려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 _____, 「고려시대 耽羅 주민들의 생업활동과 그 유형」, 『국사관논총』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 _____, 「고려시대 耽羅 지역의 牛馬飼育」, 『史學研究』 78, 한국사학회, 2005.
- 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제주학회, 2005.
-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 박종기, 「고려시기 제주지역 이해의 방향」, 『耽羅文化』 7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2.
- 배숙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중국사학회, 2012.
- _____, 「원대 탐라목장과 포구, 해로의 복원 - 디지털지도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139, 중국사학회, 2022.
- 에노모토 와타루(榎本 渉), 「송일·원일 간 해상항로와 고려 도서지역」, 『해양문화재』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 오기승, 「13세기 여몽 경제시대에서의 삼별초 세력에 대한 고찰」,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 이강한, 「고려 후기 만호부(萬戶府)의 '지역단위적' 성격 검토」, 『역사와 현실』 100, 한국역사연구회, 2016.
- _____,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이바른, 「고려 후기 목호(牧胡)의 제주 이주와 마정(馬政)」, 『한국중세사연구』 73, 한국중세사학회, 2023.
- 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역사와 교육』 25,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 진영일, 「고려조 탐라파견 외관 고찰」, 『耽羅文化』 2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 _____,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耽羅文化』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진축삼, 「蒙元和 濟州馬」, 『耽羅文化』 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최윤정, 「몽골의 탐라에서 고려의 제주로 - 13~14세기 탐라 관할권의 변화와 그 원인 -」, 『대구사학』 154, 대구사학회, 2024.
- 한정수, 「고려 문종 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9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